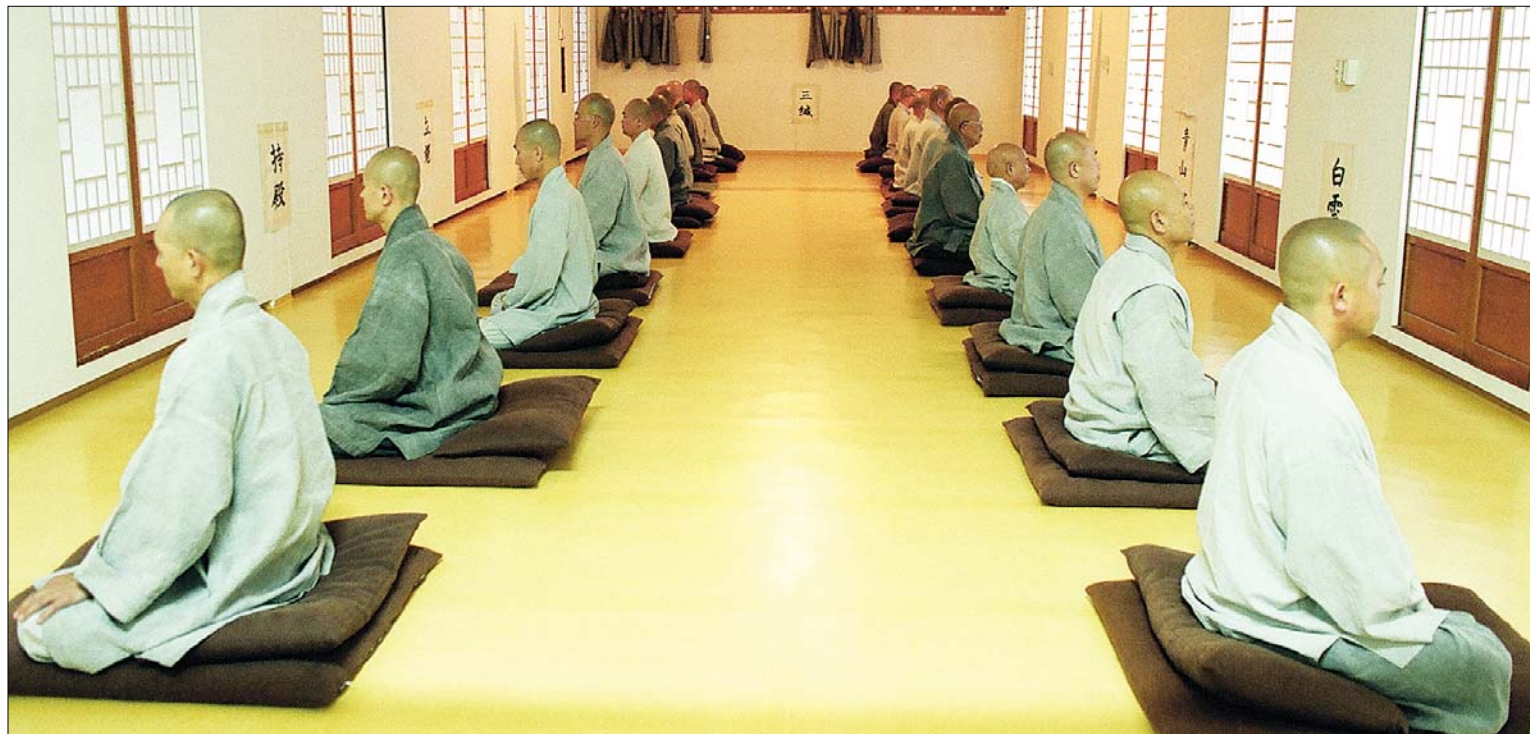


2. 수행



### 불교가 사회·의식 변혁을 주도하며 변해야

경술년 선달, 내설악의 겨울은 일찍 시작됐다. 눈보라는 계곡을 타고 가파르게 아래로 쏟아져 내렸고, 높은 소나무 가지는 밤마다 자지러지는 소리를 내며 부러졌다. 먹이를 찾아 내려온 산짐승들은 백담사 계곡 얼음장 위에 족적을 뿌리며 어슬렁거리다가 풀썩에 코를 쳐박고 쓰러졌다. 팽팽하게 당겨진 겨울바람이 지붕 기왓장을 종횡으로 난도질했고, 짜리는 가루들이 솟구쳐 올랐다. 마당으로 흩어졌다. 만해 스님은 문밖으로 들이친 바람에 온 손가락을 입김을 불어 풀면서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원고를 마무리했다. 서른다섯 살의 망막 위에 ‘유신(維新)’이라는 두 글자가 두드러졌다가 이내 희미하게 흐려졌다.

2년 전인 1908년에 수개월간 일본 조동종(曹洞宗) 총본산인 조동종대학에 잠시 머물렀었다. 대학 기관지인 ‘화옹지(和融誌)’는 “한국 강원도 고성군 건봉사(乾鳳寺)의 도제(徒弟)인 한용운 군이 혼자서 일본 불교를 공부하기 위해 5월 9일 조동종대학을 찾아왔다”고 짧막한 기사를 실었다. 그 때 만해가 돌아보았던 일본 본토는 러일전쟁의 승리에 들떠 있었다. 1868년 유신 이후 들어선 메이지 정부가 급속도로 받아들인 서양 문명은 일본 땅에 안착해 있었다. 유신의 깃발 아래서 일본은 기고만장했고 일본 불교도 호기롭게 성장하고 있었다. 유신은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인 듯 싶었다.

<조선불교유신론>은 열다섯 항목으로 나눠 적었다. 각각 개별적이었지만, 유신 하나로 조여 들게끔 구성했다. 첫 번째로 불교의 성질에 대해 논했다. 종교적인 것과 철학적인 것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종교적인 성질의 핵심은 ‘희망’이고 철학적인 성질의 골자는 ‘진리’라고 역설했

다. 희망이 없는 삶은 황폐해질 것이고, 희망을 빙자한 미신은 속임수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에, 이 둘은 서로 비벼져야 마침내 아름다울 것이었다.

참선에 대해서는 다섯 번째 항목에 실었다. 만해 스님은 옛날의 참선하던 이들을 먼저 생각했다. 그들은 마음을 고요하게 가지려고 애썼다. 그런데 근래의 사람들은 그 처소(處所)를 고요하게 가지려고만 한다. 이는 염세와 독선에 지나지 않으며, 구세의 가르침이요 중생제도의 가르침인 불법(佛法)과는 상치되는 것이었다. 게다가 선의 취지의 본말을 모른 채 세월만 끌고 다니며, 구두선만 입삼으며 ‘시심마(是甚麼: 이것

때문에 옹답해야 했다. 대처는 조선의 불교가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자신의 종교성을 어느 정도 훼손해야만 하는 내부개혁을 적극적으로 단행할 용의가 있는가를 살피는 시금석이었다. 세상은 대처에 대한 불교계의 태도를 살피면서, 불교가 세상을 위해 제 몸을 불사를 수 있는지 두 눈 부릅뜨고 살필 것이었다.

외부의 박해나 탄압이 아무리 가혹해도 종교는 끝내 멸절(滅絶)하지 않는다. 종교는 자진(自盡)할 뿐인데, 사회적 문제 상황에 대한 통찰과 사회구성원의 거시적 염원을 담아내지 못할 때 종교는 스스로 사라진다. 불교가 사회와 의식의 변혁을 주도하고 참여하며 나날이 스스로 변해야 하는 것은 모질고 힘들지만 거여코 감당해 내야 하는 일일 것이다.

세백년에 서문(序文)을 적어나가면서 매화나무 한 그루가 떠올랐다. 조조(曹操)가 목마름에 시달리는 병사들에게 조금만 더 가면 매화나무 숲이 있다고 하자, 병사들의 일에 저절로 군침이 돌았다고 한다. 이 시대의 백성들이 감동 난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읽어내고 그들의 입에 군침 돌게 할 수 없는 종교라면, 백성들은 마침내 그 종교가 왜 있어야 하는지 되물을 것이다.

멀리 민가에서 닭울음소리가 새벽을 깨웠다. 책을 마쳤지만 책 속에는 길이 없을 것이다. 길은 오로지 걷는 자의 땀일 뿐이다.



박재현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교수

#### 종교적인 성질의 핵심은 ‘희망’

#### 철학적인 성질의 골자는 ‘진리’

『』를 찾는 중에 유명(有名)의 속물이 넘쳐나니 답답한 노릇이었다. 진정한 선은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간과하지 않는 선이며, 그것을 ‘선외선(禪外禪)’이나 ‘활선(活禪)’이라고 해도 좋았다. 선의 좌표는 세상 속에 있고, 끝내 세상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었다.

가장 신경 쓰이는 대목은 승려의 결혼문제였다. 대처를 옹호하고 나서면, 조선 불교계의 대다수 인사들이 왜색(倭色)과 파계(破戒)를 운운하며 욕할 것이 뻔한 노릇이었다. 하지만 왜색은 좁은 민족주의에서 비롯된 반감에 불과할 뿐, 먼 미래를 보지 못하는 소치였다. 또한 대처는 파계가 아니기 때문에 옹답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설사 파계가 하더라도 분명한 시대적 요청이기

### 선학원에서 만해 스님을 만나다

## ‘님의 침묵’ 산실이자 불교개혁운동 중심

### 임제종 운동 주도하던 만해 스님 선학원 건립에 앞장

“선학원(禪學院)에 있으면서 만해 스님의 심부름도 많이 했지요. 내 나이 18세 되던 해 만해 스님은 47세였는데 그때 <님의 침묵>이 출간됐어요. 당시에는 만해 스님의 시에 관심을 갖는 이가 거의 없었어요. 그때 나(석주 스님)는 만해 스님의 시집 출판을 알리기 위해 책방마다 시집을 돌리고 시집 판권을 모아 만해 스님께 갖다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운 석주 스님>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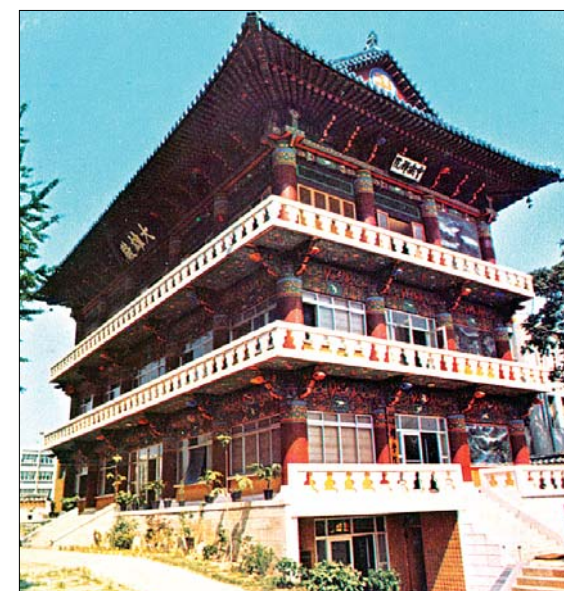
선학원은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과 북촌 한옥마을을 연결하는 길 입구에서 200여 m 떨어져 있다. 만해 스님은 이곳에서 근대시사의 흐름을 바꾼 <님의 침묵>을 출간했다. 책 출간은 임제종정기(臨濟宗正期)에 퇴색된 불교개혁운동, 불교의 정체성 회복, 항일 민족 운동의 일환이었다.

만해 스님은 범어사 경성포교당의 포교사인 남전 스님, 석악사 경성포교당의 포교사인 도봉 스님, 범어사의 석두 스님, 성월·만공·용성·적음 스님과 함께 선학원 설립을 주도한 인물이다. 이들은 1910년 조선불교가 일본불교에 종속되는 것을 반대하는 임제종(臨濟宗) 운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었다. 임제종 운동은 한국불교가 대척식육(帶食肉食)하는 일본불교에 부속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운동이었다. 선학원의 건립은 임제종 운동에서 비롯됐다. 선학원 건립으로 일본의 침략과 일본 불교의 유입으로 인한 불교계의 혼란과 위기를 총체적으로 극복하고자 했으며 선원의 부활과 수좌들의 수행 여건 향상에도 힘썼다.

이후 만해 스님은 1913년 <조선불교유신론> 발행, 1919년 용성 스님과 불교계 대표로 독립선언서에 서명,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식에 참석했다. 독립운동에 참여한 3년간 옥살이를 한 만해 스님은 항일의식과 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1921년 5월 선학원 발기인 대회에 참여했다. 범어사가 임제종 포교당을 선학원에 기부하고, 뜻있는 선사들이 돈과 토지를 헌납하면서 1921년 11월 30일 ‘조선불교 선학원 본부’가 준공됐다. 준공 이후 만해 스님은 행정, 운영상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게 됐고 이로부터 불교저항운동은 본격적으로 전개됐다. 선학원은 근대적 불교운동을 전개했다. 임제하에서 산실돼 가던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 바탕위에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려는 중추적 기관으로 거듭나게 됐다.

1922년 만해 스님 등 전국 수좌들은 선학원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선우공제회(禪友共濟會)를 창립했다. 선우공제회는 철저한 수행으로 선종 진학을 하고,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자립자에 할 것을 강조했다. 만해 스님은 1926년 6월 9일 선학원에서 6·10 만세 운동 사전 검속으로 체포돼 종로서에 수감되기도 했다. 선학원은 1931년 적음 스님에 의해 인수 재건됐다.

글뿐 아니라 말하는 재주도 뛰어났던 만해 스님은 만공·용성 스님과 함께 일반 대중에게 설법·강화, 참선 등을 통해 불교대중화에 주력했다. 1931년 창간된 대중잡지 <선원> 창간호 만해 스님의 경건 강화 등의 수업이 6차례 진행되고, 6월 1일(음력 4월 15일)에는 결계에 대한 강연, 8월 27일(7월 백중)에는 설법을 한 기록이 남아있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일반 신도들의 대중적 모임인 남녀선우회, 부인선우회 등이 조직되면서 선의 대중화와 함께 재가자 수행의 조직화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선학원이 새 불교의 등지가 됐던 것이다. 이상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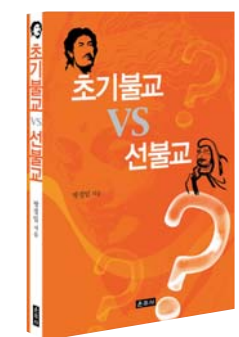
1973년 선학원은 1921년 준공된 옛 건물을 철거 3층 건물을 중창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중창 당시 모습(위). 1941년 2월 26일부터 10일간 선리참구원은 유교법회를 개최해 대처승들이 늘어남으로써 교단이 세속화되고, 타락해 가는 상황에서 비구승들의 청정 수행기풍을 진작시키고자 했다. 왼쪽 맨 앞줄부터 이운허 강령명 장석상 박한영 송안공 채서용 김상철 김적음 스님. 사진제공=선학원

### 글 읽는 순서.....

1. 만해와 '조선불교유신론'
2. 수행
3. 포교
4. 종단 및 사찰운영
5. 계율
6. 신행
7. 교육
8. 만해와 오늘의 불교
9. 소설-만해 스님



## 초기불교 VS 선불교



한국불교의 미래는 선불교인가 초기불교인가? 불교 전반에 대한 탄탄한 지식과 풍부한 상상력으로 흥미진진하게 써내려간 한 편의 소설 같은 책. 현대 한국 불교를 관통하는 두 개의 흐름, 전통적인 선불교와 새롭게 유행하는 남방불교의 한판 대결! 한국사회에서 선불교는 한계에 봉착한 것인가? 남방불교의 득세는 일시적 유행인가, 아니면 한국불교의 미래인가? 보다 본질적으로, 한국 초기불교주의자들의 주장은 교리적으로 올바른가?   
발경일 저 | 신국판형 | 296쪽 | 값 13,000원

### 다음 생을 바꾸는 49일간의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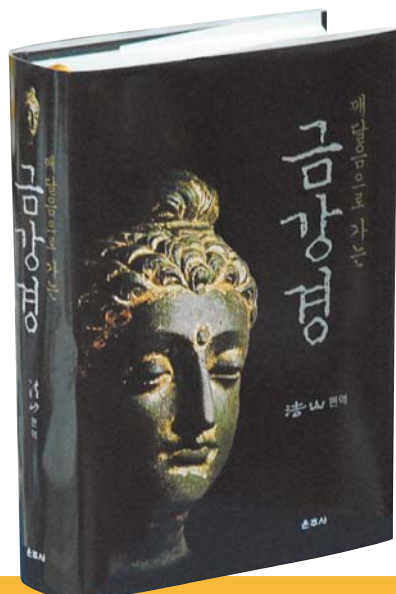
「리벳 사자의 서」에 의한 죽음에서의 해탈법

죽어서 다음 생을 받기까지 49일의 죽음 기간 중 단 계별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들의 의미는 무엇인지, 천도를 하는 이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망자를 어떻게 경책해야 하는지 등을 담고 있다.

석범성 편역 | 신국판형 | 144쪽 | 값 8,000원

## 금강경 해설의 새로운 지평!!! 풍부한 일화와 사진, 초기불교와 대승불교를 넘나드는 깊고 폭넓은 해설!

### 깨달음으로 가는 금강경



초기불교를 지양분 삼아 더욱 풍부해진 금강경 해설!  
이 책은 계율과 선정을 중시하는 초기불교와 중생구제의 보살행을 실천하는 대승불교, 번뜩이는 지혜를 강조하는 선불교의 가르침을 수행자의 안목에서 한 맛으로 회통하고 있다.

사진과 일화로 읽는 금강경!  
부처님이 직접 설하는 듯한 생생한 해설과 다양한 사진자료는 금강경의 가르침을 온전히 보여줄 뿐만 아니라 불법의 정수까지도 오롯이 드러내 보인다.

한 편의 소설을 읽듯 흥미진진한 금강경!  
마치 한 편의 상황극을 보는 듯 재미있고 친절한 풀이를 한 장 한 장 읽다보면, 지혜의 완성, 번뇌의 타파에 한 발 다가가 어느덧 참나를 찾는 길에 들어서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법산 편역 | 신국판양장 | 울컬러 | 764쪽 | 값 38,000원



\*저자 법산 스님은 국내 제법과 인도, 미얀마 등지에서 수행했으며, 현재 대구 대각사(053-6565-108)에서 불교명상대학 지도와 금강경 강의를 통해 법업을 나누고 있다.